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BOK 강원경제 메모 10호]

강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분석 및 시사점

□ 강원 지역소득(소득(분배 측면), 소비(지출 측면)의 역외유출 지속

- 고소득 통근인구, 관광업 회복지연, 온라인 소비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지역소득 유출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 지역소득 유출 1% 심화 시, 강원지역 성장률(명목)이 **0.3%p** 정도 감소할
소지

□ 지역소득의 역내 선순환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정주여건 개선(도내 교통망 정비, 기업 유치(기회발전특구 준비, 체류인구 확대)고급 실버타운
유치 및 의료서비스 다양화 등이 긴급

※ 주요 내용은 <붙임1>[BOK 강원경제 메모 <2024-10호>]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제조사팀 조사역 이시은

Tel : (033) 258-3287 Fax : (033) 257-0525 E-mail : gangwon@bok.or.kr

“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gangwon>)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BOK
강원경제
메모
<2024-10호>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2024년 7월 31일(수)

작성자: 이시은 조사역
(033-258-3287)

강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분석 및 시사점

- 최근 강원지역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역소득소득소비의 역외 유출이 지속
 - 소득(분배 측면의 소득) 유출 지속
 - ▶ 고소득 통근인구, 접경지역 특성, 본사-공장 구조 등에 주로 기인
 - 소비(지출 측면의 소득) 유출 점차 확대
 - ▶ 온라인 소비 확대, 관광업 회복 지연, 의료시설 부족 등이 주요 요인
- 지역 소득의 유출이 1% 확대되는 경우 성장(명목 기준)을 약 0.3%p 악화시킬 소지
 - ▶ 역내 근로소득 및 역내소비 1% 유출시 각각 0.3%p 자체 추정 정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 따라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① 소득유출 완화
 - ▶ 정주여건 개선지역내 교통망 정비, 기업 유치기회발전특구 등이 긴요
 - ② 소비유입 활성화
 - ▶ 체류인구 확대고급 숙박시설 및 실버타운 유치, 의료환경 개선원격협진 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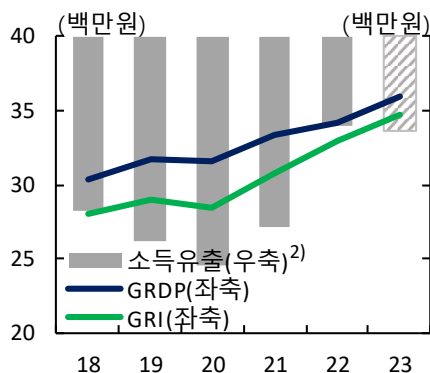
[그림1] '18년 이후 강원지역은 소득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23년의 1인당 소득순유출 규모는 128만원(추정)

[그림2] 소비순유출 규모는 소비유출의 증가 등으로 '18년 21조원에서 '23년 35조원으로 빠르게 확대

강원지역 소득유출은 그 규모가 줄었으나 여전히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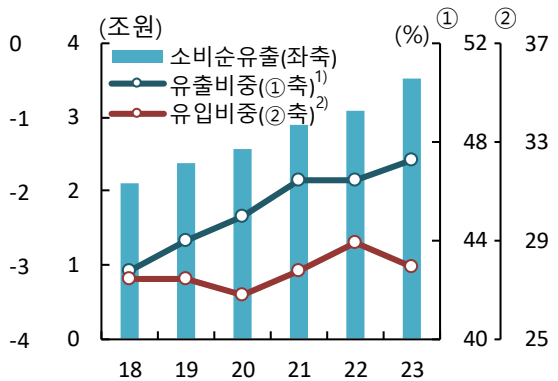
소비는 유출 확대에도 유입이 주춤하여 순유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

[그림 1] 강원지역 소득유출입 추이¹⁾



주: 1) 1인당 지역소득(명목) 기준
2) 소득유출 = GRDP-GRI, 빗금은 추정치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강원본부 추정

[그림 2] 강원지역 소비유출입 추이



주: 1) 강원지역 거주자의 결제금액 대비
2) 강원지역내 결제금액 대비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강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분석 및 시사점

2024. 7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작성자 : 강원경제조사팀 이시은 조사역

차 례

I. 검토 배경	1
II. 강원지역 소득 유출입 분석	3
1. 현황 및 특징	3
2. 요인 분해	4
3. 경제적 영향	6
III. 강원지역 소비 유출입 분석	8
1. 현황 및 특징	8
2. 요인 분해	10
3. 경제적 영향	12
IV. 시사점	14
참고문헌	16

I. 검토 배경

□ **[성장부진 지속]** 최근 강원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2.0%, '18~'22년 연평균, 실질)**이 전국 수준(2.1%)을 하회하는 등 성장이 부진

* GRD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국민소득과 지역소득의 관계'를 참조

** '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시현

○ 이에 따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강원경제 비중은 '18년 2.5%에서 '22년 2.4%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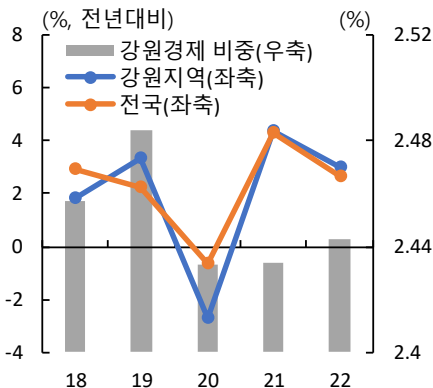
□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영향]** 더욱이 지역내 소득이 역외로 꾸준히 유출되고 있는 점은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민의 소득으로 분배되고 다시 역내 소비로 이어져 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필요

— 다만, 어느 정도의 역외유출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부수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측면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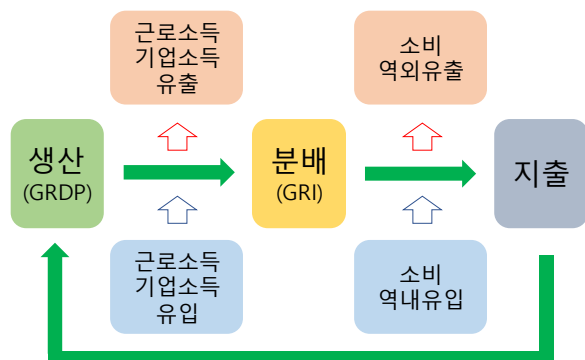
⇒ 강원지역 소득·소비유출입 구조를 파악한 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강원지역과 전국 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입 구조



자료: 임성운, 이한솔(2023)

<참고 1> 국민소득과 지역소득 간의 관계

-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3가지 측면에서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라 지칭하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이 값들은 이론적으로 일치
 - 다만 각 지역별로는 생산→분배→지출의 순환과정에서 일부 소득이 역외로부터 유·출입됨에 따라 3가지 측면에서의 값에 차이가 발생
- 지역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3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
 -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가치의 합계
 - 요소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등)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
 - 지역총소득(Gross Regional Income, GRI):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계로, GRDP에서 지역외로부터 순수취한 본원소득(재산소득 등 포함)을 포함
 - 생산과 달리 **피용자보수**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영업잉여**는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
 - 지역내총지출은 각 경제주체별(가계, 정부, 생산자 등)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소비 및 투자 등을 통해 지출한 내역의 합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 지표의 포괄범위

산출액	지역내총생산(GRDP)				중간 소비
지역내 총생산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지역총소득 (GRI) (소득계정별)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지역민 총소득 (제도부문별)	개인	일반정부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지역내 총지출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이출	

Ⅱ. 강원지역 소득 유출입 분석*

* 소득유출입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소득유출입 추정 방법”을 참고

1 현황 및 특징

□ **[현황: 꾸준히 순유출]** 강원지역 소득은 지역총소득(GRI) 통계가 작성·공표 되기 시작한 '00년 이래 순유출 지속

○ '23년 기준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에서만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의 1인당 순유출 규모는 약 128만원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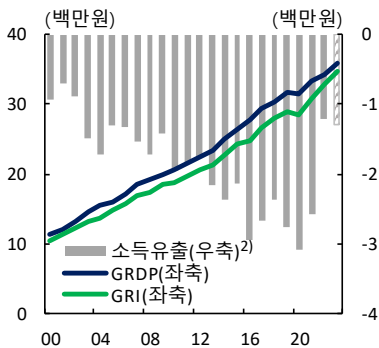
* 7개 지역('23년 기준): 전남, 충남, 울산, 경북, 충북, 경남, 강원

□ **[특징: 높은 근로소득 유출 비율]**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소득 유출이 17개 시도 평균과 유사한 반면 근로소득 유출은 17개 시도 평균을 상회*

* 강원지역은 기업소득 대비 근로소득 규모(3.2배, '23년 기준 추정)가 전국(2.4배, 17개 시도 평균)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외로 순유출되는 근로소득의 규모(지역 내총생산 대비)가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 기업(공장) 유치에 수반되는 영업잉여 유출과 달리 근로소득 유출은 가계소비와 직결되어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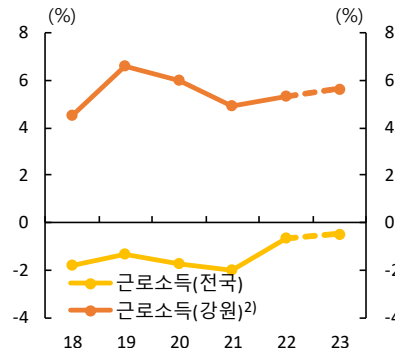
강원지역 소득유출입 추이¹⁾



주: 1) 1인당 지역소득(명목) 기준
2) 소득유출 = GRDP-GRI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강원본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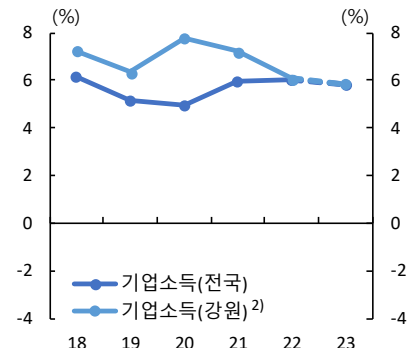
근로소득 역외순유출률¹⁾



주: 1) 지역내총생산 대비 순유출액(%), 점선은 추정치
2) 17개 시도 평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강원본부 추정

기업소득 역외순유출률¹⁾



주: 1) 지역내총생산 대비 순유출액(%), 점선은 추정치
2) 17개 시도 평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강원본부 추정

2 요인 분해*

* “분배소득=근로소득(피용자보수)+기업소득(영업잉여)+재산소득”을 활용하여 각각을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추정방법은 “<참고 3> 근로소득, 기업소득 유출입 추정 방법”을 참조

□ **[근로소득]** 고소득 통근 유입인구 및 공공행정·국방 부문 취업자 유입 영향으로 순유출이 지속

○ 순통근유입인구* 감소('15년 8.4천명 → '20년 7.8천명)에도 평균소득** 이 높은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외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역외 순유출률이 상승

* 순통근유입인구 = (강원지역 근무취업자 - 강원지역 거주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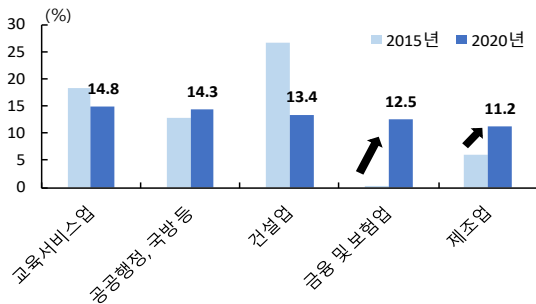
** '22년 산업별 임금근로일자리 평균소득은 금융·보험업(757만원), 제조업(454만원)이 공공행정·국방 등(408만원), 교육서비스업(399만원), 건설업(30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타시도 취업자 유입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유출되는 것과 달리, 강원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낮음에도 순유출을 기록

○ 군부대 주둔의 특수성* 또한 근로소득 유출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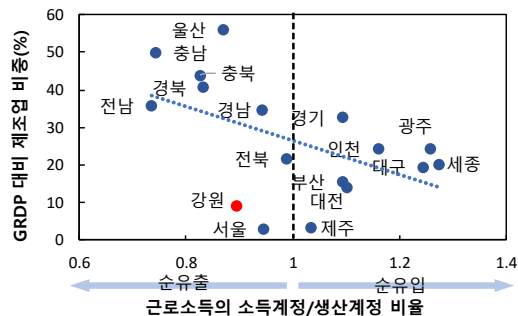
* 강원도 접경지역 등의 의무복무 군인에 지급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근로소득 생산계정(피용자 근무지 기준)에는 전액 포함되는 반면, 소득계정(근로자 주소지 기준)에는 일부만 포함되어 순유출 규모(소득계정 - 생산계정)가 과대계상

강원지역 취업자 순유입¹⁾



주: 1) 강원지역 순통근유입인구 대비 산업별 순통근유입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제조업 비중¹⁾²⁾과 근로소득 순유출입¹⁾간의 관계



주: 1) 2022년 기준
2)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자료: 신동수·최재원(2020)을 업데이트

□ **[기업소득]** 본사-공장간 소득이전, 상가 및 주택 임대료*의 역외 유출 등으로 순유출이 지속

* 지역소득 추계시 상가 및 주택의 임대료는 재산소득이 아닌 영업잉여로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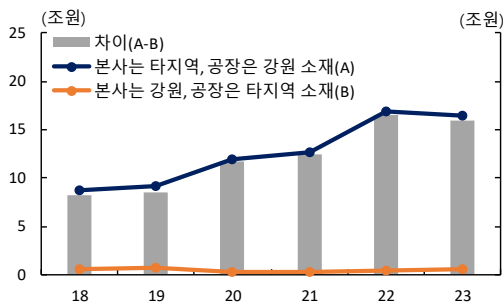
○ 본사가 타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반대의 경우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은 기업소득 역외 순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통상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본사가 위치한 대도시로 영업잉여가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강원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낮음에도 기업소득이 유출되는 모습

* 지역내 제조업 발달이 동 지역의 역외유출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역외 거주자의 강원지역 부동산 보유 비중(15.3%, '22년 기준)이 전국(13.6%)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상가 및 주택 임대료도 영업잉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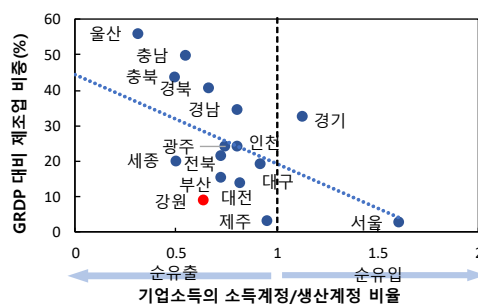
본사 및 공장의 소재지역별 기업¹⁾의 영업이익



주: 1) 각 연도별 상장 및 등록사 기준

자료: ValueSearch

제조업 비중¹⁾²⁾과 기업소득 순유출입¹⁾간의 관계



주: 1) '22년 기준

2)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자료: 신동수·최재원(2020)을 업데이트

□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기타투자 소득(보험가입자의 자산운용 소득 등), 이자 및 임대료, 배당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지속

* 금융자산 또는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을 소유주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거나 임대하고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

○ 배당금 소득 순유입 규모는 꾸준히 확대된 반면 기타투자 소득은 다소 축소

3 경제적 영향

-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 소득 유출입에 따른 강원지역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내 근로소득 1% 추가유출은 강원지역의 경제성장을 약 $\Delta 0.3\%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22년 기준)
 - 동 분석은 평균소비성향('22년 분기평균, 전국 1인 이상)에 따른 1차 효과만 고려하고 있어* 2차 효과 등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의 GRDP를 '근로소득 $\Delta 1\%$ 감소분 \times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한 뒤 값으로 가정한 뒤 성장률 변화를 추정
 - 기업소득 유출의 경우 타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사업부문 유출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있어 추정에서 제외

<참고 2> 소득유출입 추정 방법

- 소득유출입의 추정
 -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나 지역 총소득(GRI)는 제도부문의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이 둘의 차이를 통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입 규모를 추정 가능
 - $GRI - GRDP = \text{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유입 본원소득} - \text{유출 본원소득)}$ 으로, 동 값이 (+)이면 소득유입, (-)이면 소득유출이 발생
- 다만 GRDP와 GRI는 모두 12월에 전년도 잠정치가 발표되는 등 속보성에 한계가 있어 '23년의 지역소득은 추정이 필요
 - 이에 지역경기전망지수(Regional Economic Conditions Index; RECI)*를 바탕으로 '23년 GRDP와 GRI를 추정
 - * 연간GRDP와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총부가가치를 추정한 후 국민소득(GDP)과의 차이를 보정한 값을 '15년(분기평균) 기준으로 지수화한 값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BOK 이슈노트 제2023-9호)'를 참조
 - '22년의 시도별 GRDP(명목)에 지역경기전망지수의 연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23년의 시도별 GRDP(명목)을 추정
 - '23년의 시도별 GRDP(명목) 대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비율이 '22년과 같다는 가정 하에 '23년의 시도별 GRI(명목)을 추정

<참고 3>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유출입 추정 방법

□ GRDP는 지역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나 GRI는 제도부문의 소재지(거주지 및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이 둘의 차이를 통해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역외 유출입 규모를 추정 가능

○ GRDP는 GRI와 달리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의 합계(요소소득)만을 공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유출입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며, GRDP 요소소득 통계는 '21년까지만 공표된 상황

○ 이에 지역산업연관표(2015)와 국내총생산(GDP)의 피용자보수·기업잉여 비율을 활용하여 지역별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유출입액을 추산

① '15년 국내총생산의 피용자보수 비율과 지역산업연관표(2015)의 피용자보수 비율 간의 갭(%p)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15년 이후의 지역별 피용자보수 비율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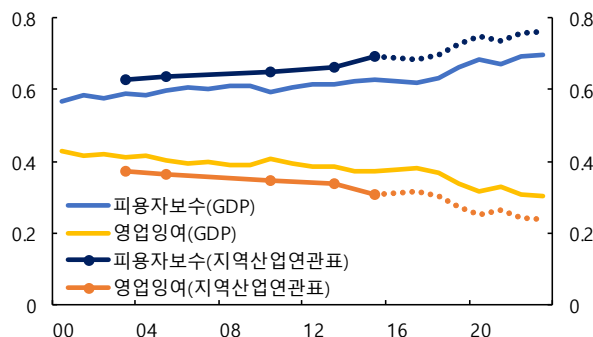
* 지역산업연관표(2003, 2005, 2010, 2013, 2015)의 강원지역 피용자보수·영업잉여의 흐름이 국내총생산(GDP)의 피용자보수·영업잉여의 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 것에서 착안

② 2022년 지역별 GRDP 대비 요소소득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여 2023년의 지역별 GRDP 요소소득과 피용자보수·영업잉여를 계산

③ 추정된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의 크기를 비교하여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역외순유출률*을 추산

* 근로소득 역외순유출률 = (GRI 피용자보수 / GRDP로부터 추정한 피용자보수) -1
 기업소득 역외순유출률 = (GRI 영업잉여 / GRDP로부터 추정한 영업잉여) -1

**지역산업연관표(강원)와 GDP(전국)의
 피용자보수·영업잉여 비율¹⁾ 추이**



주: 1) 요소소득(GRDP 및 GDP)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강원본부 추정

Ⅲ. 강원지역 소비 유출입 분석

1 현황 및 특징

□ **[현황: 순유출 확대]** 최근 소비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유입은 주춤하면서 소비 순유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

* 신용카드 3사(신한, 하나, 농협) 결제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유출입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소비유출입 추정 방법”을 참고

○ 다만 소비 순유출 규모('23년 기준, 1인당 약 230만원)는 17개 시도중 11위로 양호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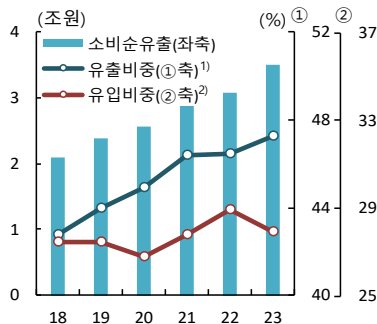
□ **[특징: 유입은 관광업, 유출은 온라인 쇼핑]** 유입은 다른 지역(제주 제외)과 달리 관광업(숙박, 레저, 요식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유출은 여타 지역과 유사하게 온라인 쇼핑 등 본사집중업종* 중심

* 김민우, 이현진(2024)은 지역적 편중(전자상거래, 보험, 자동차판매 등)에 따라 본사소재지로 결제액이 집중되는 업종들을 본사집중업종으로 분류

○ 소비유입 중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개 시도 중 제주('18.1~'24.5월 평균 53.1%) 다음으로 높은 절반 수준(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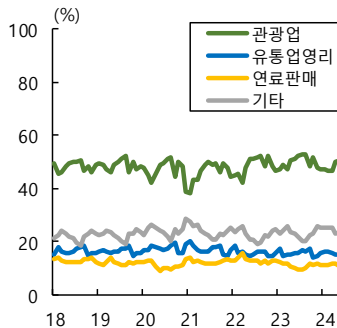
○ 본사집중업종(유통업영리, 여행, 자동차판매, 보험, 용역서비스) 유출 비중은 전체의 67.5%('24.5월 기준)를 차지

강원지역 소비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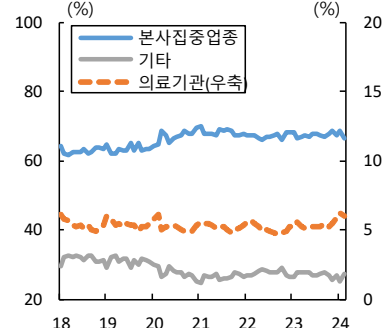
주: 1) 강원지역 거주자 결제금액 대비
2) 강원지역내 결제금액 대비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주요 소비유입 업종



주: 1) 월간 소비유입액 대비(%)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주요 소비유출 업종



주: 1) 월간 소비유출액 대비(%)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참고 4> 소비유출입 추정 방법

- 업종별·지역별 소비유출입은 한국은행이 신한·하나·농협카드와의 협약을 통해 제공 받고 있는 지역별 신용카드 승인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
- 신용카드 결제데이터는 사용자의 청구지와 가맹점 주소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 소비의 유출입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
 - 강원지역 거주자(청구지)가 다른 지역(타 지역 가맹지)에서 카드 결제한 경우 소비 유출로 판단하였으며, 역외소비율은 $B/(A+B)$ 로 정의
 - 강원지역 가맹지에서 타 지역 거주자가 카드 결제한 경우 소비 유입으로 판단하였으며, 소비유입률은 $C/(A+C)$ 로 정의

신용카드 결제데이터에 따른 소비구조

소비지 거주지	강원지역	타 지역	계
강원지역	강원지역 거주자의 역내 소비(A)	강원지역 거주자의 역외 소비(B)	강원지역 거주자의 소비(A+B)
타 지역	타 지역 거주자의 역내 소비(C)		
계	강원지역 내 소비 (A+C)		

업종 및 세부업종에 따른 분류

업종	세부업종	업종	세부업종
1. 숙박	특급호텔, 호텔, 콘도 등	17. 서적문구	서적, 인쇄·출판, 문구 등
2. 여행	항공사, 여행사, 렌터카,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등	18. 학원	등록금, 유치원, 자동차학원, 일반학원 등
3. 레저용품	운동경기·레저용품, 악기점 등	19. 사무통신	사무기기,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4. 레저업소	골프장, 볼링장, 수영장, 스키장, 당구장, 노래방, 놀이동산 등	20. 자동차판매	중고차, 신차, 수입차 등
5. 문화취미	민예/공예/선물용품, 화원, 애완동물 등	21. 농업용품	농기계·비료·사료·종자
6. 가구	철제가구, 일반가구	22. 자동차정비	주차장, 자동차시트·타이어, 차량용품·부품, 정비·세차·서비스 등
7. 전기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23. 보험	보험
8. 주방용구	주방기기·용품·정수기	24. 의료기관	한의원·한약방, 종합병원, 일반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의료기기·건강진단 등
9. 연료판매	주유소, LPG, 가정용연료판매	25. 보건위생	화장품, 이용원 및 미용실, 사우나 등
10. 광학제품	사진기·광학제품, 사진관	26. 요식업소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11. 가전	가전제품	27. 음료식품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물 등
12. 유통업영리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면세점, 편의점, PG업종, 전자상거래 등	28. 건강식품	인삼 및 건강식품
13. 유통업비영리	연금매장 등	29. 건축자재	조명 및 실내장식, 페인트 등
14. 의복	기성복, 아동복, 내의류 등	30. 용역서비스	세금공과금, 부동산중개, 화물운송, 법률사무, 회계 및 세무업, 광고 등
15. 직물	옷감·직물, 커튼·지물 등	31. 수리서비스	세탁소 등
16. 신변잡화	신발, 시계/귀금속, 가방, 액세서리 등	32. 기타	기타

2 요인 분해*

* “순유출=비거주자 유입-거주자 유출”을 활용하여 각각을 분석

□ [유입 부진] 최근 소비유입이 지난해 수준을 대체로 하회하는 등 관광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

○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해외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며 강원도 방문객이 줄어든 점에 주로 기인*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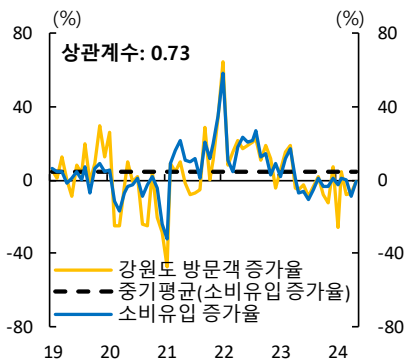
* 소비유입과 강원도 방문객의 상관계수는 0.73 수준('19.1~'24.5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 해외 방문객 수는 약 4.7배 증가('22년 441만명 → '23년 2,067만명)한 반면 강원도 방문객 수는 소폭 감소('22년 1.53억명 → '23년 1.52억명)

— 세부업종별*로는 골프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유입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 신용카드(하나카드, 농협카드 기준) 결제금액 데이터로부터 소비유입액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도출하였으며, 신한카드는 세부업종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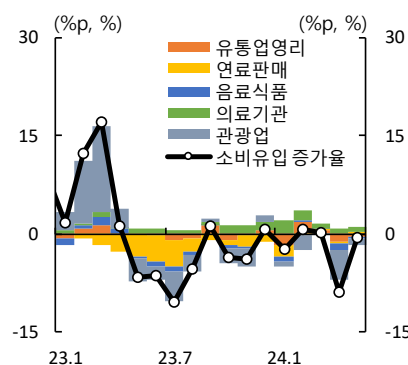
소비유입 증가율¹⁾²⁾과 강원도 방문객¹⁾ 추이



주: 1) 전년동기대비
2) 중기평균은 '19.1~'24.5월 기준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한국관광공사,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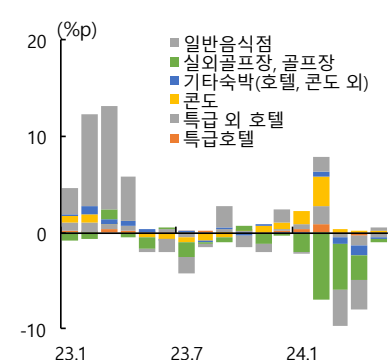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주요 품목¹⁾의 소비유입 기여도²⁾



주: 1) '19.1~'24.5월 기준 누적 기여도 상위 업종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소비유입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관광업의 세부업종별¹⁾ 소비유입 기여도²⁾



주: 1) '19.1~'24.5월 기준 누적 기여도 상위 세부업종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소비유입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자료: 하나카드, 농협카드

<참고 5> 영서·영동지역 관광업 소비유입의 특징

□ 영서·영동지역*의 관광업 소비유입은 세부업종간 상관관계 및 계절성에 있어 차이를 보임

* 영서지역은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할구역(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영동지역은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할구역(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을 기준으로 함

○ 영동지역에서는 숙박·레저·요식업 간에 소비유입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서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음

— 이는 여타 지역과 영서지역간 지리적 인접성, 부족한 고급 숙소* 등으로 관광시 숙박 등 체류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 김효정(2024)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4·5성급 호텔은 주로 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서지역 내 위치한 5성급 호텔은 세이지우드 호텔(홍천) 1곳으로 관광객 수가 많은 원주, 춘천에는 부재

— 또한 영서지역의 숙박업이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등)에 집중되면서 요식·레저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겨울에 숙박업의 소비유입이 상승하면서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

○ 영서·영동지역 모두 관광업 소비유입에서 뚜렷한 계절성이 관찰되나, 소비유입이 집중되는 계절은 영서(봄·가을)와 영동(여름) 간에 차이가 있음

— 이는 강원지역 골프장의 39개소(61.9%, '24.2.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가 위치한 영서지역 특성상 골프연습장 매출이 봄·가을에 집중되는 점에 주로 기인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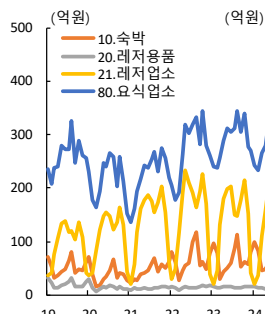
숙박·레저 소비유입액의 상관관계¹⁾

영서	숙박	레저용품	레저업소	요식업소
숙박	1.00			
레저용품	0.38	1.00		
레저업소	-0.10	-0.17	1.00	
요식업소	0.53	0.31	0.65	1.00

영동	숙박	레저용품	레저업소	요식업소
숙박	1.00			
레저용품	0.76	1.00		
레저업소	0.69	0.42	1.00	
요식업소	0.90	0.65	0.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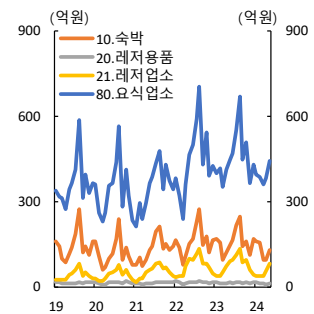
주: 1) '19.1~'24.5월 기준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영서지역 숙박·레저 소비유입액 추이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영동지역 숙박·레저 소비유입액 추이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 **[유출 확대]** 소비유출은 본사집중업종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지출의 역외 유출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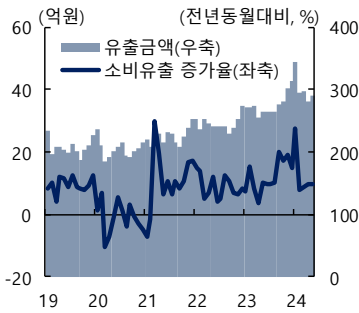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 신차 판매, 여행, 보험 등 일부 업종은 실제 가맹지 위치와 무관하게 본사 소재지로 소비액이 집계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왜곡할 가능성

○ 의료기관 소비지출 확대는 지역의료거점으로 기능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점 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

— '22년 기준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진료인원은 충남(9.5만명), 경북(8.2만명), 강원(7.2만명) 등 서울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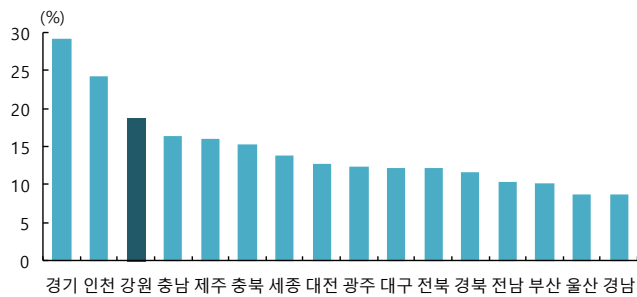
*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원지역 의료기관 소비유출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16개 시도의 서울 의료기관 소비금액¹⁾



주: 1) '18~'24.5월중 의료기관 소비금액 대비 비중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3 경제적 영향

□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 소비 역외유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의 역외유출 증가(역내소비 1% 유출) 및 역내유입 1% 감소는 강원지역의 경제성장(명목)을 각각 $\Delta 0.3\%p$ 및 $\Delta 0.2\%p$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소비 유출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방법” 참고

○ '22년 기준 강원지역 거주자의 역내소비가 1% 감소하는 경우 경제성장률(명목 GRDP 기준)에 미치는 효과는 $\Delta 0.3\%p$ 로 추정

○ 타 지역 거주자의 소비 유입이 1% 감소하는 경우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Delta 0.2\%p$ 로 추정

<참고 6> 소비 유출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방법

□ '18~'22년중 지역계정(GRDP)의 가계 최종소비지출(24.7조원, 연평균)을 거주자의 역내 및 역외 소비로 간주*하고, ① 강원지역 거주자의 역외소비액과 ② 비거주자의 강원 지역 소비유입액을 추정한 결과,

* 지역소득 통계에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정의상 거주자 가계의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거주자 가계의 타지역 소비는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GRDP에는 포함되지 않음

① 강원지역 거주자의 역내 및 역외 소비 비율(1 : 0.81, '18~'22년 평균)을 감안한 강원 지역 거주자의 타 지역 소비 금액은 연평균 약 11.1조원

② 강원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강원지역 소비 비율(1 : 0.38, '18~'22년 평균 기준)을 감안하였을 때 강원 외 거주자가 강원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은 연평균 약 5.2조원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여 강원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 강원지역 거주자의 역내 소비가 역외로 이전되면 지역내 소비가 감소하여 명목 경제성장률(GRDP 기준)도 하락

— '22년 기준 역내 소비 금액의 1%가 역외에서 소비되었다면 명목 경제성장률도 기존 2.6% → 2.3%로 하락

○ 강원지역 비거주자의 소비의 역내 유입이 감소할 경우 강원지역 소비가 줄어들고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둔화로 이어짐

— '22년중 비거주자의 역내소비가 1%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강원지역 소비(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의 증가율은 기존 13.3% → 13.0%로 낮아지며, 장기 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도 기존 8.4% → 8.2%로 하락

* 강원지역 신용카드 사용액과 서비스업 생산지수(경상지수) 간 장기 탄력성('18~'22년)은 0.6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이 1% 늘어나면 강원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0.63% 증가함을 의미

— 서비스업 생산이 명목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22년 기준 69.3%)을 감안하면, '22년중 명목GRDP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2.4%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IV. 시사점

□ **[소득유출 완화]** 대중교통 강화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타지역 취업자들의 거주를 유도하고 기회발전특구 선정전략 수립 등을 통해 앵커 기업본사를 유치하여 소득유출을 완화할 필요

○ **(道內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증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확대, 대중교통 배차간격 축소 등 도내 교통수단을 개선

* 고정된 노선에서 벗어나 여객수요에 따라 정류장, 운행구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 道 최초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원주시 '부름버스' 시스템*을 시내뿐만 아니라 시군간 시외버스 등으로도 확대하여 기존의 긴 배차간격 및 노선 부재로 인한 애로를 해소

* 작년 3월부터 도내 최초로 운영을 개시한 원주시 '부름버스'는 매월 평균 600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기업유치 노력)** 2차 기회발전특구* 선정 전략 수립, 도내 본사 소재 기업 또는 단독사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본사 유치 유도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1차 기회발전특구는 8개 시도(대전,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전북, 제주)에서 선정

□ **[소비순유입 도모]** 고급 실버타운 조성 등을 통해 고령층 소비유입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다양화로 역내 거주자의 의료여건을 개선

○ **(고급 실버타운 조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여가·문화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조성

* 고령인구가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 70.9%를 차지하며 실제로 상당수의 실버타운이 역세권에 위치(노인실태조사, 2020)

— 고급 컨시어지 서비스·커뮤니티 및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버타운 신축을 검토

* <참고 7> “최근 국내 고급형 실버타운 트렌드” 참조

<참고 7> 최근 국내 고급형 실버타운 트렌드

□ 최근 국내에서는 최고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국내 최초 세대공존형 주거단지를 갖춘 다양한 하이엔드 실버타운을 조성중

- **(5성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 '25년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VL르웨스트*는 식사,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며 세무, 법률, 여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문의료진이 상주하며 입주민의 건강을 관리

* VL르웨스트는 6~22.6억원의 보증금, 200~500만원의 월 임대료(생활비 포함)에도 최고 20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

- **(국내 최초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등장)**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25.11월 준공 예정)'는 리조트형 오피스텔과 호텔식 고급 실버타운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세대공존형 주거단지가 될 예정

- **(의료서비스 다양화)** 의료서비스 영역 확장을 통해 역내 거주자들의 응급의료 수요 및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수요가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구축

—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 원격협진*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지역내 보건소에 방문한 환자가 의료인 보조 하에 화상으로 민간 병·의원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상담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통적인 내원진료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아가 위케이션 등과 결합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

<참고 문헌>

김광민(2021), “충북의 역내외 소비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김민우, 이현진(2024), “인천지역 역외소비 현황 및 역내소비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인천본부

김효정(2024), “강원지역 관광업의 회복 요인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신동수, 최재원(2020), “강원지역 GRDP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

임성운, 이한솔(2023), “전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유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목포본부

정민수 외(2023),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한국은행 조사국